

#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신 석 하 KDI거시금융연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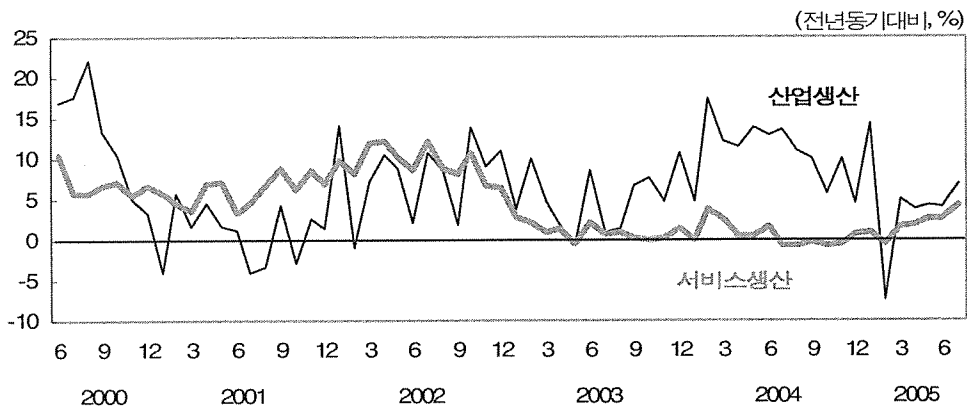
## 1. 전반적인 경기 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내수가 회복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상반기 동안 둔화되던 수출증가율도 다소 호전되는 등 전반적인 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다. 민간소비가 내구재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높아지는 등 회복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설비투자도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7~8월중 수출증가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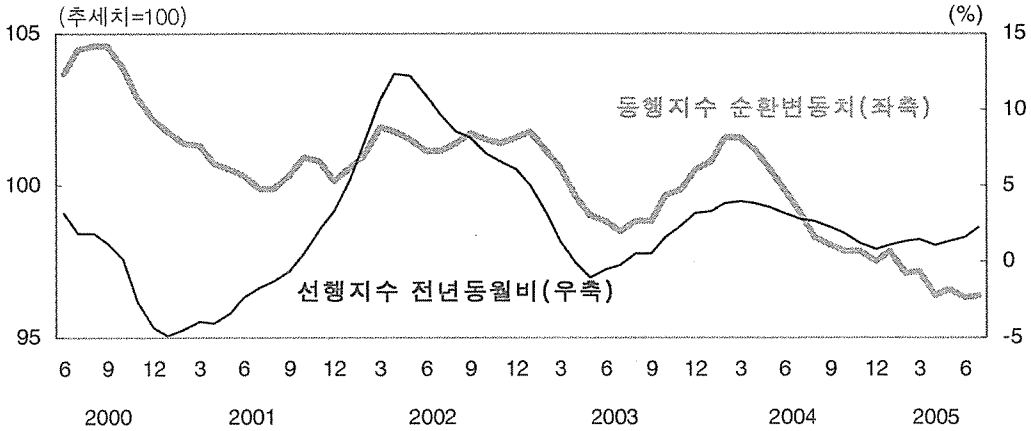
반도체 및 IT품목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비해 개선되고 있다. 기업 및 소비자의 기대심리는 실물지표에 비해 부진한 모습이나 그동안의 하락추세가 최근 다소 개선되고 있다.

산업생산은 7월중 전년동월대비 7.0% 증가하여 전월(4.1%)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계절조정 전월대비로도 1.3% 증가하여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특히 7월중 내수출하는 전월(1.8%)에 비해 크게

산업생산 및 서비스 생산 추이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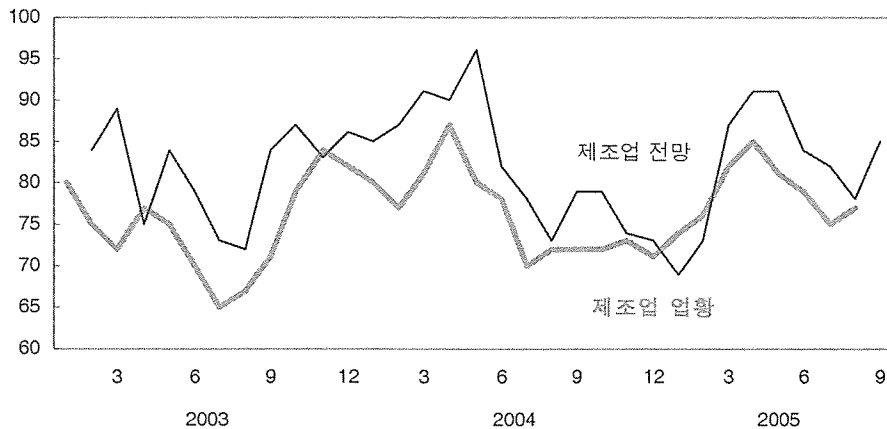
상승한 6.6%를 기록하여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수출출하(6.2%)보다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산업생산의 증가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생산자제품재고가 7월중 전년동월대비 8.4% 증가하여 전월(8.0%)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생산·재고 순환측면에서도 경기회복이 서서히 진행중임을 시사하였다.

또한 7월중 서비스생산도 대부분의 업종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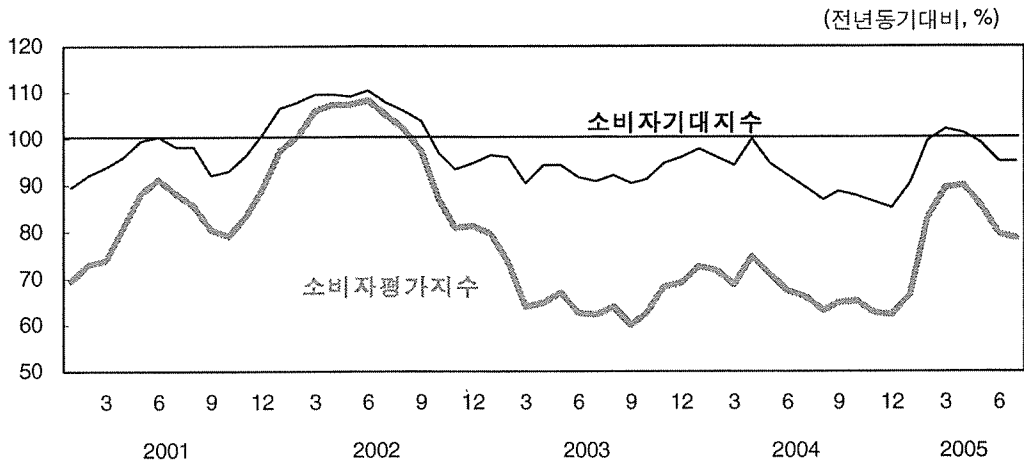
서 호조를 보인 가운데 특히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에서 증가세가 큰 폭으로 확대된 데 기인하여 전월(2.7%)에 비해 상당폭 높아진 4.2%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계절조정기준으로는 전월대비 0.2%의 상승에 그쳤음을 감안하면 서비스업은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7월중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전월에 비해 소폭 증가한 가운데 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3

기업경기실사지수 (한국은행)



소비자평가지수 및 소비자기대지수 (한국은행)



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되어 향후 경기회복이 지속될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7월중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96.3)에 비해 소폭 상승한 96.4를 기록하였으며,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전월대비 0.7%p 상승한 2.3%를 기록하였다.

최근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지표는 실물지표에 비해서는 저조한 모습이나, 그동안의 부진에서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8월중 한국은행의 제조업 업황 BSI는 77을 기록하여 3개월간 지속된 하락세에서 벗어나 소폭의 상승세로 반전하였으나, 전경련 BSI는 계절조정기준으로 전월(99.4)에 비해 하락한 97.4를 기록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의 9월 전망 BSI는 전월(78)에 비해 상당 폭 상승한 85를 기록하였으며 전경련 BSI 전망치도 전월의 102.7에서 106.3으로 상승하는 등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향후 개선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반면 7월중 소비자 평가지수 및 기대지수는 각각 78.9와 95.2를 기록하여 4개월째 하락세를 지속하는 등 저조한 모습을 나타내었

다. 그러나, 6월과 비교할 때 하락세가 완화된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경기에 대한 소비자 기대지수는 전월과 같은 92.2를 기록하여 하락세가 진정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II. 부문별 동향 및 평가

소비 관련지표들은 7월중 상승세를 지속하여 민간소비의 완만한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전월(3.5%)보다 높은 4.9%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계절조정기준으로는 전월대비 0.2%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경기에 민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내구재 판매는 전년동월대비 10.2%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7월중 설비투자 관련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전월에 비해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설비투자추계는 특수산업용기계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4.7% 증가하여 전월의 감소(-3.1%)에서 반전하였으며, 기계류 내수출하도 금년 3월 이후 지속되던 감소세에서 증가(5.0%)로 반전하였다. 또한 기계류 수입액 및

민간소비와 소비재판매액지수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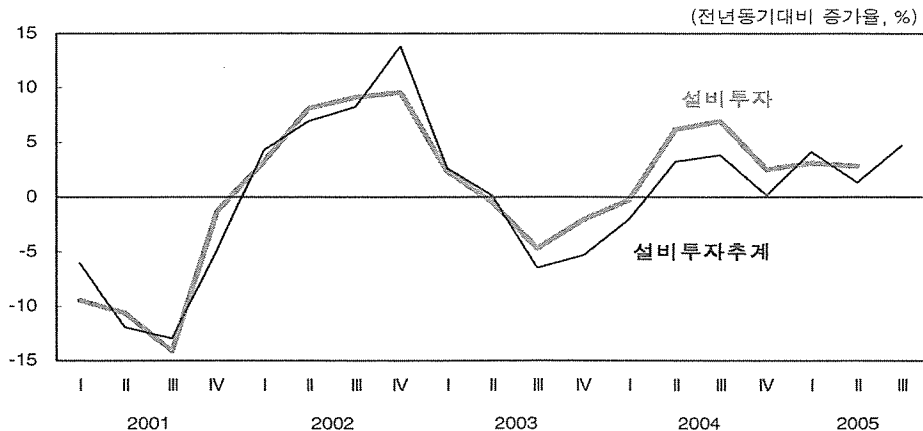


내수용 자본재 수입액도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도 금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로 반전하여 설비투자의 완만한 회복세가 유지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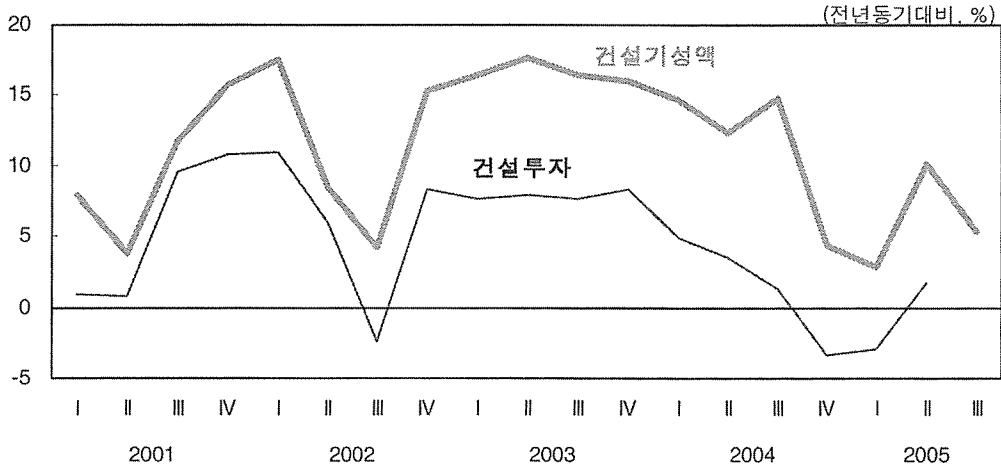
반면 건설투자는 최근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7월중 (명목)건설기성액은 전년동월대비 5.3% 증가하여 전월(11.6%)에 비해 증가세가 상당 폭 둔화되었으며, 이는 건설용중간재 가격의 상승률이 금년 초 이후 점

차 낮아지는 추세임을 감안하더라도 (실질)건설투자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도 전월(38.0%)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7.6%를 기록하였으며, 건축허가면적도 전년동월대비 -20.2%를 기록하여 2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선행지표들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상당 부분 전년동기에 대한 기술적 반락효과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향후 건설투자가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설비투자과 설비투자추계 추이



건설기성액 및 선행지표의 추이



건설투자 동향

(전년동기대비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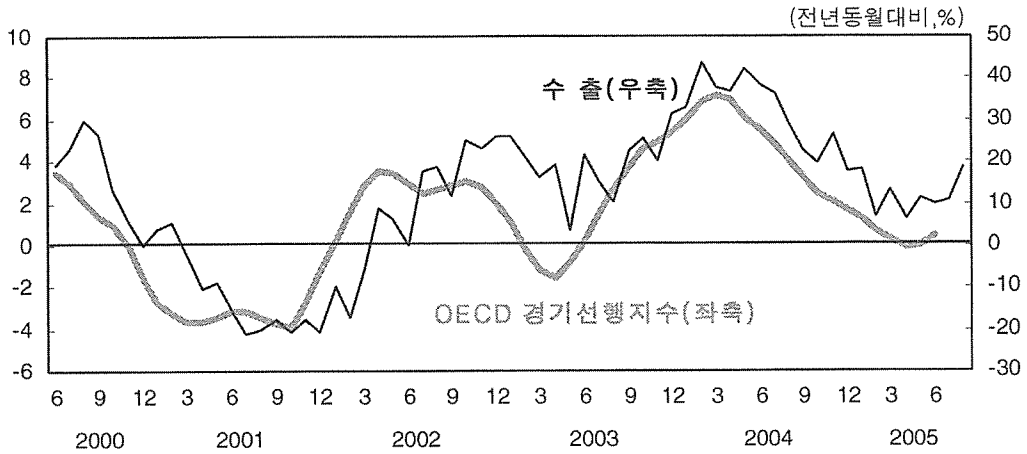
|                     | 비중 <sup>1)</sup> | 2004  |        |        |        | 2005   |       |       |       |       |
|---------------------|------------------|-------|--------|--------|--------|--------|-------|-------|-------|-------|
|                     |                  | 연간    | 2/4    | 3/4    | 4/4    | 1/4    | 2/4   | 5월    | 6월    | 7월    |
| 건설투자                | 1.00             | 1.1   | 3.6    | 1.3    | -3.4   | -2.9   | 1.7   | -     | -     | -     |
| (계절조정)              | -                | -     | (-0.4) | (-1.0) | (-1.0) | (-0.8) | (4.4) | -     | -     | -     |
| 건물건설                | 0.61             | 2.0   | 4.6    | 1.1    | -3.7   | -6.2   | -     | -     | -     | -     |
| 토목건설                | 0.39             | -0.1  | 2.1    | 1.7    | -3.0   | 4.0    | -     | -     | -     | -     |
| 디플레이터               | -                | 6.4   | 6.4    | 6.6    | 6.8    | -      | -     | -     | -     | -     |
| 건설기성액 <sup>2)</sup> | 1.00             | 11.0  | 12.3   | 14.8   | 4.4    | 2.8    | 10.1  | 11.1  | 11.6  | 5.3   |
| 공공부문                | 0.33             | 5.3   | 9.3    | 8.7    | -5.3   | -0.8   | 3.4   | 4.5   | 6.6   | -0.8  |
| 민간부문                | 0.64             | 14.4  | 14.1   | 18.3   | 9.8    | 4.4    | 13.6  | 14.7  | 14.0  | 7.7   |
| 국내건설수주              | 1.00             | -5.3  | -23.8  | -20.8  | 28.8   | 24.8   | 40.5  | 53.9  | 38.0  | 7.6   |
| 공공부문                | 0.29             | 13.0  | -29.3  | -7.8   | 43.2   | 22.8   | 75.4  | 248.8 | 31.8  | -10.6 |
| 민간부문                | 0.66             | -13.5 | -22.2  | -28.7  | 16.9   | 21.4   | 33.0  | 36.6  | 34.4  | 24.8  |
| 건축허가면적              | 1.00             | -17.3 | -34.0  | -15.0  | 14.7   | 0.2    | -1.0  | 3.6   | -26.4 | -20.2 |
| 주거용                 | 0.43             | -19.4 | -42.1  | -22.0  | 31.4   | 27.6   | 8.6   | 26.6  | -31.4 | -16.2 |
| 상업용                 | 0.26             | -32.4 | -34.9  | -31.9  | -31.6  | -30.8  | -29.1 | -43.5 | -45.6 | -31.6 |
| 공업용                 | 0.13             | 0.0   | -22.6  | 29.8   | 17.4   | -18.1  | 16.3  | 2.3   | 25.4  | -37.1 |

주: 1) 비중은 2004년 연간 기준임.

2) 건설기성액과 국내건설수주의 증가율은 명목 수치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건설교통부.

OECD경기선행지수와 우리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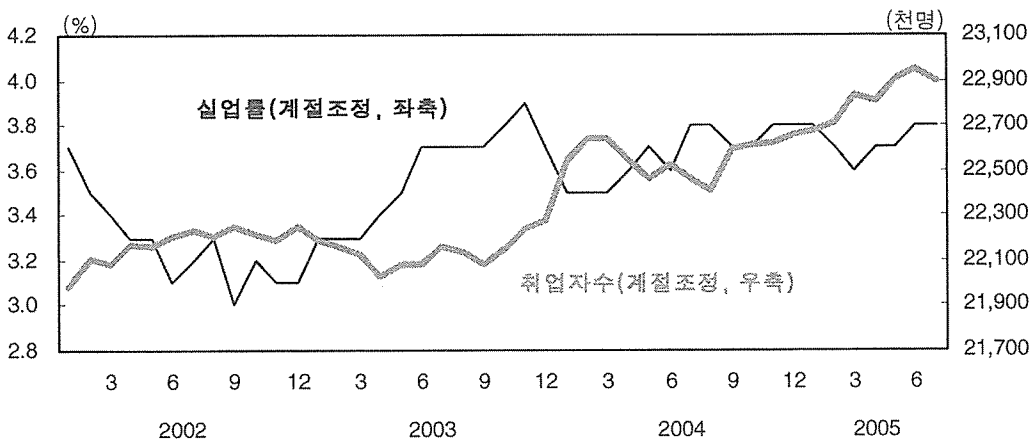


수출은 8월중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IT 품목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18.8% 증가하여 전월에 이어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지역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대EU 수출은 자동차 및 무선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대일본 수출은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또한 우리 수출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

고 있는 OECD경기선행지수가 4월 이후 증가세로 반전됨에 따라 상반기 동안 둔화되었던 수출의 증가세가 향후 다소 회복될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7월중 실업률이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취업자수의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어 고용상황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월중 취업자수 증가

계절조정 실업률 및 계절조정 취업자수



율은 전년동월대비 1.9%로 5월 이후 2%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계절조정기준 고용률과 실업률도 각각 59.6% 및 3.8%를 기록하여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와 더불어 6월중 명목임금상승률은 특별급여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8.9%를 기록하여 전월(5.6%)에 비해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고용상황은 완만하나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월중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3% 상승하여 7월(0.4%)에 이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서비스요금의 안정에 기인하여 근원물가(곡물 이외 농산물과 석유류 제외)는 0.1% 상승에 그쳐 4월 이후의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국제유가 상승으로 공업제품물가가 상승하는 한편 계절적인 요인으로 농산물 가격이 오름에 따라 소비자물가는 다소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였다.

한편 아파트 매매가격은 부동산가격안정종합대책을 앞두고 강남, 과천, 성남 등 가격급등지역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급등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강남지역의 매매가격은 8월중 전월대비 0.2% 상승에 그쳐 7월(2.6%)에 비해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며 성남 및 과천 지역은 전월대비 하락세로 반전하였다. 8월중 아파트 전세가격은 계절적 비수기로 인해 전월에 이어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하였다.

### III. 대내외 경제여건

미국경제는 2/4분기에 전기대비 연율 3.3% 증가하여 1/4분기(3.8%)에 비해 소폭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의 증가세가 유지되고는 있으나 설비

투자와 건설투자 관련지표들은 둔화될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생산 및 관련선행지표들은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는 모습이나 고용은 견실한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하지만 태풍 카트리나에 의한 피해로 인해 생산 및 고용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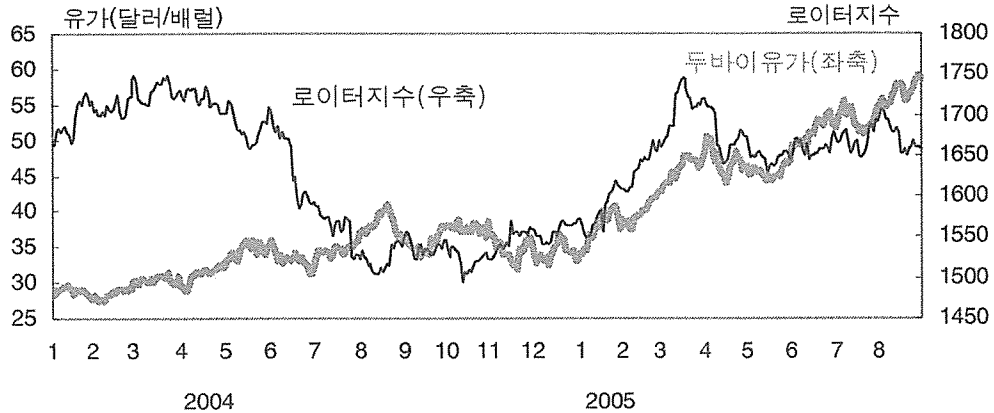
일본경제는 2/4분기에 전기대비 0.3% 증가하여 1/4분기(1.3%)보다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소비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엔화 가치 하락에 따라 최근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설비투자도 증가하고 있어 경기회복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로경제의 경우 2/4분기중 전기대비 0.3% 성장하여 1/4분기(0.4%)보다 성장률이 소폭 하락하였다.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어 소비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나, 유로화 가치 하락에 힘입어 수출이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심리지표들도 다소 개선되고 있다.

중국경제는 2/4분기 동안 9.5% 성장하여 1/4분기(9.4%)와 비슷한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소비지출이 내구재를 중심으로 견실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과열경기 진정정책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증가세가 다소 확대되는 한편 수출도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전반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국제유가는 세계원유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요인등 공급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8월중 배럴당 56.6달러(두바이유 기준)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8월말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미국 석유정제시설의 피해로 인해 향후에도 유가급등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반도체 현물가격은 8월 초순에는 개당 2.74달러로 상승하였으나 예상보다 저조한 PC수요의 영향으로 8월 말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추이



에는 개당 2.47달러로 하락하였다.

8월중 달러화가치는 유로경제 및 일본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기인하여 주요 통화대비 다소 약세를 보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엔화강세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순매도 등에 기인하여 월평균으로는 소폭 상승하였다.

#### IV. 향후 전망

우리경제는 향후에도 내수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가운데 수출증가세 둔화도 완화되면서 성장률이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가계신용 조정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소득증가에 따라 회복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설비투자도 소비의 점진적 회복, 기업부문의 수익성 개선, 환율하락에 따른 수입자본재 가격의 하락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회복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1/4분기 이후 점차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던 건설투자는 부동산가격종합안정대책의 영향에 따라 향후 회복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제유가가 세계경제 성장세의 회복에 부담을 주고 있으나, IT 부문의 경기가 호전되고 있어 우리경제의 수출증가율은 상반기동안의 둔화추세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률은 2004년에 비해 성장률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고용과 보다 밀접한 서비스업의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2004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이 상쇄하면서 2004년에 비해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가상승 및 내수회복으로 인해 상품수입 증가세가 수출증가세를 상회하면서 상품수지 흑자가 2004년에 비해 감소하는 가운데 원화가치 상승에 따라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되어 경상수지 흑자는 2004년에 비해 상당 폭 감소할 전망이다.



2004~05년 경제전망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               | 2004년 <sup>p</sup> | 2005년        |              |              |              |              |
|---------------|--------------------|--------------|--------------|--------------|--------------|--------------|
|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 국내총생산         | 4.6                | 2.7          | 3.3          | 4.3          | 4.6          | 3.8          |
| 총소비           | 0.2                | 1.7          | 3.0          | 3.6          | 4.2          | 3.1          |
| 민간소비          | -0.5               | 1.4          | 2.8          | 3.6          | 4.3          | 3.0          |
| 총고정투자         | 1.9                | 0.1          | 2.1          | 4.1          | 6.2          | 3.3          |
| 설비투자          | 3.8                | 3.1          | 2.9          | 8.1          | 9.0          | 5.8          |
| 건설투자          | 1.1                | -2.9         | 1.7          | 1.5          | 4.6          | 1.6          |
| 총수출(물량)       | 19.7               | 7.4          | 5.5          | 10.0         | 7.1          | 7.5          |
| 상품수출          | 21.0               | 8.1          | 6.5          | 11.0         | 8.1          | 8.4          |
| 총수입(물량)       | 13.8               | 5.2          | 5.5          | 10.8         | 9.7          | 8.4          |
| 상품수입          | 13.8               | 3.1          | 3.6          | 10.2         | 9.1          | 6.6          |
| 경상수지          | 276                | 60           | 28           | 30           | 21           | 138          |
| 상품수지          | 382                | 93           | 86           | 70           | 52           | 301          |
| 수출(금액)        | 2,577              | 682          | 706          | 710          | 758          | 2,856        |
| (증가율)         | (30.6)             | (12.9)       | (9.5)        | (12.2)       | (8.9)        | (10.8)       |
| 수입(금액)        | 2,196              | 589          | 620          | 639          | 706          | 2,554        |
| (증가율)         | (25.2)             | (13.8)       | (14.7)       | (19.8)       | (16.9)       | (16.3)       |
|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 | -105               | -33          | -59          | -40          | -31          | -163         |
| 소비자물가(근원물가)   | 3.6<br>(2.9)       | 3.2<br>(3.0) | 3.0<br>(2.5) | 2.5<br>(2.2) | 3.5<br>(2.8) | 3.0<br>(2.6) |
| 실업률(계절조정)     | 3.7                | 4.2<br>(3.7) | 3.7<br>(3.7) | 3.5<br>(3.7) | 3.5<br>(3.6) | 3.7          |

주: p는 잠정실적치( preliminary )임.